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 동향

2009. 3. 27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KT노조(3만여명)를 5월중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 춘투 열기를 가라앉히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

□ 탈퇴 여건

- KT는 8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고 2004년에는 신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 KT노조는 그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임에도 불법·정치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인원 감축 등 사측의 경영혁신에 협조하는 합리노선 견지

* 은 강경투쟁만 일삼는 민주노총과의 관계 정리 필요성을 수시 피력

□ 이와 관련, 국익정보국에서는

- 으로 민주노총 탈퇴 필요성을 지속 주지. 5월중 민주노총을 탈퇴토록 독려하는 한편

- 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행할 수 있도록 강경세력 견제 등 현장 노무관리를 한층 강화토록 하고

* 은 94년 투쟁시 을 맡아 민주노총 탈퇴 문제에 관심 다대

- 등 민주노총 탈퇴 추진세력을 연결. 민주노총 방해활동에 대응하는 등 민주노총 탈퇴 여건을 조성하겠다

□ 탈퇴시 파급 영향

- 등 민주노총 탈퇴를 망설이고 있는 노조들을 자극시켜 연쇄적 탈퇴를 유도. 민주노총 조직력이 급속 약화
- 5.1 노동절 집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임단투와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 관련 민주노총의 5~6월 총력투쟁 열기가 냉각. 노사관계 안정 토대를 구축

KT 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실태 및 가속화방안

2009. 4. 20

□ KT 노사 민주노총 탈퇴 추진 실태

- 勞使 대상 민주노총 탈퇴 지속 설득 활동으로 경영진은 물론 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등 핵심지도부내 탈퇴 共感帶는 형성되었으나
- 김구현위원장은 조합원 지지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5월內 탈퇴를 주저
- 이에 使側은 탈퇴 추진에 대한 노조지도부의 묵시적동의를 확보하고 6.1 KT·KTF 통합前 탈퇴를 마무리지을 복안 아래 강성세력인 '民同會' 견제 등 현장 노무관리를 한층 강화중

□ 따라서, 국익정보국 은 KT노조가 5월중 민주노총을 탈퇴할 수 있도록

- 當院 에 협조적인 이동걸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과 공조, 김구현 을 설득하고 4.30 50개지부장 선거시 쏠 집행부후보를 當選시켜 탈퇴 추진기반을 다지고
- 勞使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중인 年俸制 도입 등 이견 사안을 원만히 합의되도록 거중 조정하여 갈등요인 사전 제거
- 또한, 사측은 賃團協시 임금인상 등 노조에 선물 제공과 쟁점현안을 조기 타결토록 해 조합원들의 탈퇴 거부감을 완화토록 지도

□ 파급영향

- KT노조는 민주노총 대의원(1,000여명) 5% 차지·조합원 數 국내 3위 (2.8萬명) 등으로 탈퇴시 민주노총 세력 약화에 크게 기여
- 또한, 민주노총 산하 IT연맹 가입 노조 대부분이 KT 계열사로 이들 노조들의 연쇄 탈퇴도 예상되어 IT연맹 붕괴도 기대

※ 국익정보국 은 민주노총의 비리·취약점 등을 지속 발굴, 보수언론 및 단체 등을 통해 부각하는 등 사회적 탈퇴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하겠음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건인을 위한 측면지원 필요

- KT노조는 민노총 소속의 강성조직이라는 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면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민노총 탈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 7.10 조합원(2萬 8,000여명) 찬반투표 공고에 이어 오는 7.17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인바
 - 사측은 現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자체 조사결과 88%가 지지)를 받고 있어 탈퇴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민노총은 그간 KT노조가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등 전형적인 어용조직이었다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 **현대중공업**에 이어 산하 노조중 3번째 규모인 KT노조가 탈퇴시 여타 대형조직 탈퇴가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판단
 - 등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접 회유·설득에 나서는 등 탈퇴 저지에 안간힘

* 강성파들은 정부 공작 운운하며 KT노조 집행부 대상 폭력행사·KT 본사 점거농성 불사 공언

- KT노조가 탈퇴시 민노총 勢 위축은 물론 산하 조직의 민노총 이탈 촉발 등 긍정적 파장이 기대되므로 탈퇴성사를 위해 치밀한 이면관리 필요

- ① 노조로 하여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노총 탈퇴는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 선택임을 부각, 여론 先占 및 민노총의 개입시도 차단
- ② 민노총이 정부 개입설 등 제기시 사법처리(허위사실 유포죄) 가능성을 강력 경고, 비난공세를 원천봉쇄하는 등 적극 대응
- ③ 메이저 언론과 협조, 민노총 비리·폐해를 부각하는 시리즈 기사 게재 등을 통해 여타 노조의 脫민노총 분위기 확산 유도

※ 배 포 : 대통령실장, 사회정책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KT 노조의 民勞總 탈퇴 추진

2009. 7. 6

국익정보국은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위해 KT 를 수시로 접촉, 賃團協 타결(5월말) 등 노사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총투표(7.17) 등을 실시토록 유도

□ 국익정보국 은 그간

○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위해 KT사측과 공조, 인사·보수제도 개선(4.30)·賃團協 타결(5월말) 등을 유도, 노사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에서 勞使간 이견을 보였던 직급폐지·직종단일화 실현

○ 와 수시 접촉, 50개 지부장 선거시 지지후보 全員을 당선(4.30)토록 하는 등 민노총 탈퇴 기반을 구축한데 이어

○ 지방본부위원장회의시(7.7) 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의결토록 하여 7.17 총투표를 통해 민노총을 최종 탈퇴토록 할 계획임

* 7.10 민노총 탈퇴 여부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일정(7.17)을 공고

□ 평가 및 전망

○ 노조원들이 집행부 를 신뢰(88%)하고 있고, 노조 장악력이 높은 사측의 민노총 탈퇴의지가 강해 조합원 총투표시(7.17) 가결될 것으로 전망

○ KT노조의 민노총내 세력규모대의원 3%·조합원 數 2만 8,000명) 등을 감안시 민노총 탈퇴를 의결할 경우 민노총 세력 약화는 물론 여타사업장의 이탈 가속화를 유도하고

○ 민노총 산하 IT연맹 가입 노조 대부분이 KT 계열사로 이들 노조들의 연쇄 탈퇴도 예상되어 IT연맹 붕괴도 기대

※ 국익정보국은 사측과 협조, 조합원 대상 탈퇴찬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반대세력의 妨害활동을 점검·견제, 탈퇴 마무리 주력하겠음. 끝.

KT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일정 및 조치 필요사항(保安)

'09. 7. 7

1. KT노사 는 當院 협조 하에

7.17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민노총 탈퇴 추진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反집행부 및 민노총의 탈퇴 방해·위해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

2. 관련 내용

- 은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를 7.17 조합원 총회를 통해 마무리짓기로 합의하고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
- 추진 일정
 - 7.7~7.8 지방위원장 회의 개최, 민노총 탈퇴 및 KTF 노조 통합
건을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
 - 7.9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 개최, 지부장 전원으로부터 조합원
총회 안건 상정 찬성 연서명 작성
 - 7.9 KTF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KT 노조와 합병 의결
 - * 지난 6.1 KT와 KTF가 합병
 - 7.10 조합원 찬반투표(7.17) 공고
 - * KTF 노조와의 합병 및 민노총 탈퇴에 관한 件

- 7.13~7.16 노사 조직을 풀가동, 찬반투표 독려
- 7.17 조합원 찬반투표
- 7.20 이후 자회사 사장회의 개최, 8월 이내 자회사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결의

○ 이와 관련, ... 에서는

- 노조원 2만8천여명으로 세 번째로 큰 KT 노조가 민노총 탈퇴할 경우 IT 연맹이 붕괴되는 등 민노총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
- 노조反집행부(400여명) 및 민노총의 탈퇴 방해·위해 활동이 극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KT 본사 및 주요 지사에 대한 시설 보호를 비롯하여

하다며 ... 을 요청(끝)

가 필요

KT노사의 시설 및 인사 보호 요청 관련 경찰 조정 결과

09.7.13

1. 는 지난 7.10 KT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시도하면서 노사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음에 따라 경찰청 담당과장 및 국장을 상대로 신속하면서도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요청하자 경찰청 간부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 방침 시사

* KT노사는 노조 회사
측의 및 KT본사 광화문·여의도 사
음에 대한 보호 요청

2. 관련 동향

- 는 지난 7.10 경찰에 “KT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면서 반대세력이 노사 간부 및 시설물에 위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同 인사와 시설에 대한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하자

* 국민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 민원실(경찰청 감찰과 소속)에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경우 통상 생활안전국에서 조치

- 은 감찰과 산하의 민원실에 KT노사가 7.10 오후에 보호요청서를 보내와서 지체없이 담당국인 생활안전국에 이첩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고 언급

- 또한 은

- 감찰과 민원실로부터 KT노조의 보호요청을 받고 서울·경북·경기·대전 지방 경찰청 관련부서에 통보·조치시켰다고 답변하면서

- 지금은 KT노사 간부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밖에 없어 일단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주력하고 있으나
- 만약 KT노사간부들이 반대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이를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 올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망.끝.

KT, 명예훼손 혐의로 KT노조反집행부 핵심 인사 고소 토록 조정(保安)

'09. 7. 14'

1. 당원IO는 KT 사측으로 하여금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을 비난하며 회사 명예를 훼손한 反집행부
핵심인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토록 유도

2. 관련 내용

○ 조태욱 등 KT 노조 反집행부인 현장조직 '민동회' 핵심 인사 14명이

* 조태욱은 지난해 연말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김구현 위원장 과 경합을 벌인 인물

- 지난 7.13 오전 분당 소재 KT 본사 앞에서 'KT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폭거로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다'
제하 기자회견을 실시

-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KT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網사업 부문
분리 분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KT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 당원IO는 민주노총 탈퇴 실무 책임자인 KT 에게

- '민동회'측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
하였고

- KT 본사 앞 기자회견을 악용한 연좌농성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인 만큼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민동회 측의 탈퇴 방해 활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o 이에, KT 사측은 금일 오후 조태욱 등 7.13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동회 회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치
- o 한편
 - '민동회' 회원들은 사측이 고소하자 민노총과 연계하여 탈퇴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어제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근무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고
 - 노조 집행간부들은 7.17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민노총 탈퇴 당위성을 홍보하는 조합원 교육 및 투표 참가를 독려하고 있음(끝)

부산지부, KT 노조 간부 활용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 발표 유도

2009.7.15

□ 當院,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극렬 노조원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자동지회”가 조합원을 상대로 반발 e-mail을 발송하는데 대응, 탈퇴찬성 지지 성명서를 발표토록 유도

□ 관련내용

○ 09.7.17 실시되는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반대하는 KT노조내 극렬 조합원 200명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자동지회(회장: 조태욱)는

- 7.14-7.17간 KT노동조합 조합원(28,612명) 대상으로 “노조가 민노총 탈퇴와 동시에 KT노조는 해체될 것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진

* 민주노동자 동지회 회장 조태욱(47세)은 한국외대 러시아과 졸업 후 89.1 KT입사하여 KT노조 인천지부장을 거쳐 민노당 인천시당 대의원으로 활동중인 정치성이 강한 인물임

○ 이에 를 조정, “KT노동조합의 민노총 탈퇴선언을 지지하며” 題下 아래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토록 하였음

- KT노동조합은 새희망을 만들어가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7일 실시한다

- KT노조는 4대 이전에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된 5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민노총으로 바뀌었으며 조합원을 불모로 대정부투쟁을 위한 선봉대가 되었다

- 그로 인하여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전복세력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으며, 이때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 지금은 종사원 어느 누구도 정년은 커녕 고용보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시점에서 과연 민노총과 KT노동조합이 같은 노선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 민노총이 외쳐대던 모든 것을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노동자 해방 세상이 우리 KT의 현실과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 이제라도 과거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바로잡아야 한다.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싸움에 골몰하는 이런 민노총에 KT노동조합원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
- 현실과 동떨어진 과격한 노동운동보다는 고용보장과 조합원의 실익이 우선 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과 비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시기이다

○ 이와관련 는

- 同 성명서를 KT노조 내부 통신망 및 민주동지회 홈페이지 (www.ilovekt.org)에 등록,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 끝.

KT노조 민주총탈퇴관련 경영진대상 지원당부

2009.7.16

에서는 7.17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와 관련 찬성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등 일부 경영진 대상으로 은밀 지원 당부

- KT노조 민주총탈퇴 추진관련 관내 KT법인사업단 등 노조원동향
 - 민주동지회 등 극렬 KT노조원들은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시 대량해고 수순으로 이어진다”며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
 - 연말 구조조정 단행과 관련 KT노조가 동의하더라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
 - 대다수 노조원들은 KT와 KTF간 통합(09.6.1)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용승계가 아닌 해고형태의 구조조정에는 반대
 - 40-50대 노조원들은 사측이 미디어·마케팅·네트워크 부문 등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사측의 설득에 긍정적 표명을 하면서도 의구심 표시
 - 지난 7.9 이석채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반드시 민주노총으로부터 탈퇴해야 한다”고 은밀리 주문함에 따라 극렬 노조원의 저항과 반발이 심화
 - * 노조원 일각에서는 의 의도대로 KT노조가 쉽게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 작일(7.15) 가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하는 듯한 이메일을 사내 홈페이지에 올려 다수 강성 노조원
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

□ 등 경영진대상 민노총 탈퇴 지원당부 요지

- 한국을 대표하는 IT업체인 통합KT가 컨버전스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
- 사측과 KT노조측의 상생차원에서 민주노총 탈퇴가 이뤄지는 만큼
관내 KT산하 경영진들도 국익차원에서 노조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회유하는게 바람직
 - 'KT노조 민주동지회' 등 강성노조원들이 존재하는 이상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KT경영진들이 보안
유지하에 다단계판매식으로 직원들을 설득하는게 필요
- 작일(7.15) 가 소신있게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KT노조가 자생하려면 민주노총 탈퇴가
바람직하다"라고 게재한 것과 관련
 - 극렬 노조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반노
조원들로 하여금 '라이언 일병구하기'식의 격려 및 지원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토록 함으로써
 - 강성 노조원들의 비난과 위협을 차단, 일반 노조원들이 익일
(7.17) 09:00-18:00간 실시되는 민주노총 탈퇴 찬성쪽에 기울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요망

KT 前노조 간부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 발표 이후 관련 동향

2009. 7. 16

- 7.15 KT노조
내부 통신망 등에 「KT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선언을 지지하며」 題下
성명서 게재 이후 격려성 전화·댓글 등이 쇄도, 관련 동향파악결과 보고임

* 7.16 오전 현재 격려 전화 56건·KT 조합원 게시판에 탈퇴지지 관련글 110건 등록

□ 관련 내용(요지)

【 KT 간부 】

- 위원장 께서 많은 고민을 하여 내린 결단으로 KT 조합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했다
- KT 노조가 왜 민주노총 탈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으며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동하는 등 호의적인 반응시현

【 KT 노조간부·노조원 】

-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협박하는 사람은 민주노총 탈퇴 후 구조조정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 매년 8억원씩 민주노총에 회비를 납부했다면 그간 100억원 넘는 돈을 냈었네.. 이번에 꼭 탈퇴해서 스포츠 센터나 하나 지읍시다

- 쌍용차 사태에 보듯이 노조와 회사가 다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KT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위해 지금이 적기이다

등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 정흥근 완전히 돌았구나 덩치값이나 하고 김구현에게 전임자리 하나 달라고 솔직히 이야기 해라

- 밤길 조심해라

등과 같은 비난·협박성 반응도 있었음

□ 조치 의견

- KT의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자동지회(회장 : 조태욱)의 핵심 조직원 200명을 비롯한 일부 극렬 노조원들은

- KT 본사 앞 등지에서 “현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대규모 구조조정시 반발을 최소화하기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선전전 개최 등 투표 종료시까지 반대집회를 획책하고 있고

- 순 조합원(28,612명) 상대로 “민노총을 탈퇴하면 그 다음 수순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요하게 선전·선동하고 있어 민노총 탈퇴안이 부결될 가능성 상당히 농후한 바

○

反 KT노조 “민주노동자 동지회” 민노총 탈퇴 반대 메시지 발송동향

2009. 7. 17

- 금일(7.17) 실시되는 민주노총 탈퇴 및 KT·KTF 노동합병관련
임시조합원 찬반투표 관련하여 이에 반발하는 反 KT노조세력인
“민주노동자 동지회” (회장 : 조태욱) 소속 조합원 200명은
- 민주노총 탈퇴는 노동자 분열행위. 분열로는 구조조정 막을수 없다
 - 탈퇴부결의 한마음으로 고용안정·부결로 생존권 지켜내자
 - 어용노조 부정 투개표 조합원이 감시자로 신고합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번갈아 가며 쏠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있음.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 다각적인 설득 끝에 김구현 위원장이 5월초 민노총 탈퇴를 결심 하였으나 "탈퇴 시점은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면서 임단협과 연계할 뜻을 비추자

- 사측에 민노총 탈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임단협시 노조가 요구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수용토록 하여

- 김구현 위원장이 민노총 탈퇴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

○ 그러나 임단협이 원만히 합의되었음에도 김구현 위원장은 임단협과 민노총 탈퇴 건을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붙일 경우 조합원들이 반발 할 가능성이 있다며 탈퇴 추진을 6월 중순으로 연기할 뜻을 전달 해 온 가운데

○ 死去 정국 형성으로 민노총 탈퇴 강행시 좌파들의 공세가 우려된 다며 6월 탈퇴 추진 입장을 철회하고 7월 중순 탈퇴 추진 입장

을 비밀리 전달

○ 이에 당원IO는

- 김구현 위원장, 김해관 수석부위원장과 수시 접촉하여 민노총 탈퇴에 따른 개인적 보상 및 격려 방안, 예상되는 반집행부의 탈퇴 방해 책동에 대한 대책을 비롯

- 노조 지방본부장, 지부장 등 노조간부 회유 및 설득 작업 방안 등을 논의하여 KT 사측에 전달, 사측의 대책 마련을 독려

* 사측의 노조 개입력이 강해 민노총 탈퇴에 사측의 지원 및 조직 관리 역할이 중요

○ 7월초 KT 노사는 민노총 탈퇴 추진 일정을 확정하여 당원IO에 통보 하면서

-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및 이석채 회장 등 회사 임원들에 대한 반집행부의 위협 및 KT 본사 등 주요 시설물 점거 농성 등에 대비한 경비(경호) 지원을 요청

* 관련 조치 사항을 보고(7.11)

- 7.10 조합원 총투표 공고 일부터 7.17 조합원 총투표 까지 매일 노조
및 노사협력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 KT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민노총 특이 동향 등을 점검하여 노사 양측에 지원함으로써 민노총
탈퇴를 성공리 마무리

「KT 노조」 민주노총 탈퇴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2009. 7. 20

「KT 노동조합」은 7.17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94.9%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안을 가결하고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선언

□ 관련 동향

○ 「KT 노동조합」은 7.17 09:00~18:00간 전국 450개 투표소에서 'KT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안을 전격적으로 가결

* 재적 조합원 28,462명중 27,018명(95%)이 투표에 참여, 25,647명(94.9%)이 탈퇴안 찬성

○ 이와 관련, 「KT 노동조합」은

- 개표후 발표문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발표

- 또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포한 만큼 지금부터가 진짜 도전'이라며 실용적 중도 개혁노선에 따라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 등에 투쟁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천명

* 금일(7.20) 실시될 'IT산업연맹 회의'에서 탈퇴서 제출 및 향후 수순을 논의할 예정

- 이후 상급단체 없이 독자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다른 IT노조와 연합체를 설립하겠다는 복안

- 동반 상정된 'KT노조·KTF노조'의 합병안도 투표 조합원 97.3%의 찬성으로 가결 통과
- 한편,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반대해온 종북·좌익세력인 민주노동자동지회(회장 조태욱)와 민주노총은 이번 투표과정에서 사측 및 보수세력의 부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반박
- * 09년 이후 인천지하철노조 등 12개 산하노조가 탈퇴한 민주노총은 3대 금번 KT노조의 탈퇴로 정치적·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나 하반기 통합공무원노조(15만명 추산) 출범·민주노총 가입으로 재기를 계획중

KT노조 民勞總 탈퇴에 따른 KT계열사 노조 탈퇴여건 점검 계획

2009. 8.14

KT노조가 7.17 민노총을 탈퇴함에 따라 민노총에 가입된 KT 계열사의 민노총 탈퇴 여건을 점검 계획

□ KT노조는 7.17 조합원을 상대로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실시결과 95% 투표 · 95%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를 결정

* 총 조합원 2만 8,434명중 95%(2만 7,01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2만 5,647명이 찬성

⇒ 민노총 산하 IT연맹 가입 노조대부분이 KT 계열사로 이들 노조들의 연쇄 탈퇴도 기대할 수 있어 IT연맹 붕괴 가능성도 상존

□ KT계열사 노조 민노총 탈퇴 여건 점검

○ KT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산하 을 접촉한 결과

- IT연맹 의 최대 회원 사업장노조의 탈퇴로 심기 불편 · 의기소침 등 후유증이 상당한데다

- 아직 탈퇴에 대한 반발심도 강해 KT 계열사들의 민노총탈퇴를 위해 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곤란

○ KT 계열사 노조위원장들은 대외적 · 공식적으로는 소속노조의 민노총 계속 잔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 개별적으로는 KT 노조 탈퇴시 자신들과 동반 탈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 · 추진했다면 동반 탈퇴도 충분히 가능했다며 아쉬움 표출

○ 한편, KT그룹측은 당장 민노총 소속 계열사의 민노총 탈퇴를 추진할 경우 노조측의 강력 반발·시민단체의 사측 노조 와해 공작 제기 등이 우려되므로

-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민노총 소속 계열사 탈퇴를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 향후 추진 계획

○ KT 그룹 경영진의 협조를 받아 다음주부터는 KT 계열사의 노무담당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각 사업장별 노조 집행부의 입장 및 조합원 분위기 등을 파악

* KT계열사는 KT 파워텔·KTN·KTF 테크놀로지·KT 사브마린·KT데이터시스템·KT 텔레캅 서비스 등 6개사업장

○ KT계열사 노무담당 책임자를 통한 각 사업장 민노총 탈퇴여건 점검 결과에 따라 탈퇴 추진여건이 양호한 KT 계열사를 선정하고

- 우선, 탈퇴 추진여건이 양호한 勞使 대표를 직접 접촉, KT 노조 민노총 탈퇴에 따른 勞使 대표양측의 반응 및 조합원들의 여론 등을 점검하는 한편

- KT 계열사중 소속조합원들의 동요가 심하거나 민노총 소속 및 투쟁 노선에 불만을 가진 사업장 실태를 집중 파악. 끝.

KT 계열사 5개 노조 민노총 탈퇴 유도

'09. 12. 16

1. 지난 7월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계기로 IT 연맹 내 KT계열사 노조 탈퇴 및 IT 연맹 차원의 민노총 탈퇴를 추진

○ KT 노사와 주 1회 접촉, KT 계열사 노조의 IT 연맹 탈퇴 전략을 마련한 후

○ KT 계열사 을 수시 접촉, IT 연맹 탈퇴 필요성을 주지, 탈퇴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 KT는 계열사 사장단회의 를 소집하여 탈퇴 작업을 독려하고, KT노조도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탈퇴를 설득하는 등 공조

○ 박흥식 IT 연맹 위원장을 4차례 접촉, KT계열사 노조의 개별 탈퇴가 아닌 IT 연맹 차원의 민노총 탈퇴 추진을 적극 설득하여 IT 연맹의 민노총 탈퇴 작업을 지난 11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

○ IT 연맹의 민노총 탈퇴가 노조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어 당원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 요청과 관련

- 을 면담, 동 노조의 민노총 탈퇴 참여 를 적극 설득토록 당부하는 등 관련 사측의 협조를 유도

2. 그러나, KT 비계열사 노조의 민노총 탈퇴 반대로 인해 IT 연맹 차원의 민노총 탈퇴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 박흥식 IT 연맹 위원장 및 KT 노사와 협의하여 KT 계열사 5개 노조만을 IT 연맹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민노총에서 탈퇴시키기로 전략을 수정하고

* 금 12.16 IT 연맹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KT계열사 5개 노조의 분할을 결의

- 탈퇴 후 KT그룹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합리노조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맡도록 활동 방향을 정립